[2027추천고교] '강북대표 넘어 전국명문 도약' 선덕고.. '서울 공교육 롤모델 급부상'

이상현 기자 | 승인 2026.10.25 14:03 | 호수 491

'파죽지세 선덕의 13년'.. 서울대 4명(1기)에서 35명(13기)까지

[베리타스알파=이상현 기자] '강북 대표'라는 수식어로는 부족하다. 2024대입에서 36명의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 전국 고교 톱5에 이름을 올리며 서울 전역에 파란을 일으킨 지 3년. 이후 해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실적을 이어가며 어엿한 전국명문 대열에 합류했다. 결국 2026대입에서는 서울대 35명, 의약계열 54명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표를 선보였다. 실적의 배경을 놓고 보면 현행 대입에 가장 유리하다 평가받는 사교육 배후 교육특구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실제 상황을 알고나면 오히려 놀랍다. 교사진의 밀착지도하에 전교생 95%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공교육체제'로 일군 성과이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구 광역자사고 선덕고의 얘기다.

물론 시작은 창대하지 않았다. 광역자사고 전환 후 1기 졸업 때 받은 성적표는 서울대 4명이었다. 그러나 세 번의 교육과정 변화라는 역경 속 13기가 졸업한 2026학년엔 서울대 합격생 35명의 실적은 그야말로 상전벽해급이다. 급기야 의대정원이 원복되며 전국 고교의 의약계열 실적이 일제히 꺾인 해에도 홀로 성장세를 고수했다. 선덕고의 의치한약수 실적은 2023대입 22명, 2024대입 26명, 2025대입 32명, 2026대입 54명의 추이로 파죽지세다. 전국 고교들의 의약계열 실적이 꺾인 2026학년 오히려 역대 최고 실적을 낸 만큼 선덕고의 역량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선덕고의 실적이 더욱 값진 배경은 '공교육 체제'라는 데 있다. 일과를 일찍 마치고 학생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교육특구와 달리, 주중은 물론 수토일 자습, 수준별 방과후, 학생부 프로그램까지 학교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연스레 재학생들은 교사들과 소통하고 학교에 머물며, 대입을 대비하게 된다.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지만 전교생 95% 이상이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기숙형 학교와 동일한 학습 몰입도를 구현해낸 셈이다. 수시/정시 가리지 않고 대비 가능한 수능형 내신, 학력평가/수능 출제위원을 역임하는 등 능력은 물론 열정까지 겸비한 교사진, 모든 활동이 생동감 넘치는 학

생부의 자양분이 되는 프로그램은 의대부터 상위대, 수시부터 정시 모든 실적지표가 두루 우수한 새로운 '공교육 롤모델'의 탄생을 든든히 뒷받침해냈다. 사교육 없이 교육특구에 맞서는 실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배경이다.

2028개편을 앞두고도 자신감이 묻어난다. 내신5등급제, 수능 선택과목 폐지로 대학이 정량에서 정성으로 평가의 추를 옮기고 있는 상황인 만큼 3년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선덕고의 경쟁력이 더욱 빛날 것이라는 확신이다. 선덕고 관계자는 “5등급제에서는 전교 10%까지 1등급, 34%까지 2등급으로 내신 변별력이 약해진다. 심화 교육과정과 세특의 질이 높은 선덕고의 1~2등급이 일반고 1등급보다 더 신뢰받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2026학년부터 수시/정시를 동시에 겨냥하는 방과후 고도화 프로그램인 '마스터클래스'까지 새로 가동하며 2028대입 체제 대비에 한발 앞서 나섰다. 전국명문 선덕고의 넥스트 스텝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어엿한 전국명문으로 자리매김한 선덕고는 2026대입에서 서울대 35명, 메디컬 54명의 합격실적을 내며 또한번 고교현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사진=선덕고 제공

<‘전국명문 입증’하는 실적.. 2026대입 서울대 35명, 의약계열 54명>

선덕고의 대입실적은 해마다 기록을 쓰고 있다. 대입 실적의 두 축이라 볼 수 있는 서울대와 의약계열 합격실적 모두 우수한 드문 고교 가운데서도 매해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야말로 성장형 고교다. 특히 2019수능과 2025수능에서 두 차례나 만점자를 배출하며 이미 고교현장에서는 존재감을 각인했다.

먼저 서울대 합격자는 2023학년 29명, 2024학년 36명, 2025학년 29명, 2026학년 35명으로 4년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서울대 실적만 놓고 보면 전국 고교 가운데 한 손에 꼽히는 수준으로, 전국명문이라는 평가가 결코 과하지 않다. 합격의 질도 남다르다. 2026학년 서울대 합격자에는 의예과 치의학과 약

학계열 등 최상위 모집단위가 모두 포함됐다.

특히 수시 정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잡힌 역량으로 대입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2024학년엔 수시19명 정시17명으로 균형이 비슷했고, 2025학년 수시9명 정시20명, 2026학년 수시9명 정시26명이다. 겉보기에는 최근 정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 재학생들의 역량이 꾸준히 오르다보니 서울대 수시 1차 합격 후 수능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아 정시로 방향을 트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 수시로 최초합이 가능한 자원들이 정시에서 성적을 내면서 의대 혹은 서울대 상위과로 진학하고 있는 흐름이다. 수시로 최상위권 대학 문턱을 넘을 만큼 학생부를 갖춘 학생이 수능에서도 그 이상의 성적을 낸다는 데서 선덕고 학생들의 학업역량을 한껏 실감할 수 있다. 수시와 정시 어느 한쪽에 기대지 않는 균형잡힌 '투트랙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3년간의 성장으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도 선덕고의 강점이다. 선덕고 입학 당시 중학교 석차백분율이 20%대였던 학생들이 선덕고 입학 후 서울대 재료공학부 사회교육과 조선해양공학과에 정시로 합격했다. 중학교 성적이 최상위가 아니었던 학생도 선덕에서의 3년을 거쳐 서울대에 이른 것이다. 특히 재수없이 고교 3년간 학교가 중심이 됐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의약계열 실적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2023학년 22명, 2024학년 26명, 2025학년 32명에서 2026학년 54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의대 정원이 원복되면서 전국 대부분 고교들의 의약계열 실적이 가라앉은 가운데 선덕은 거의 유일하게 실적을 끌어올렸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대 36명, 약대 11명, 치대 5명, 한의대 1명, 수의대 1명이다. 서울대에서 의예/치의/약학 각 1명, 연세대에서 의예 2명/치의 1명/약학 1명을 배출했고 고려대 의예 3명, 한양대 의예 3명, 가톨릭대 의예 2명, 성균관대 의예/약학 각 1명 등 최상위 실적의 척도인 '빅5'는 물론 경희대 의예/치의예/약학 각 2명 등 수도권 최상위 실적도 줄을 이었다.

의약계열 실적에서도 수시 경쟁력이 드러난다. 2026대입에서 수시로 의대를 지원하여 면접에 응시한 모든 학생들은 전원 합격했다. 선덕고는 "상위 의대 당락을 가르는 MMI 면접을 3학년부와 대입부가 3월부터 체계적으로 준비시킨 결과"라고 말한다.

최상위권뿐 아니라 상위권부터 인서울까지 전체 실적의 두께도 남다르다. 2026대입 기준 고려대 61명, 연세대 24명, 서강대 25명, 성균관대 47명, 한양대 43명, KAIST 등 과기원 7명, 경찰대/사관학교 4명이 합격했고 서울소재 주요대학 합격자는 무려 422명에 달했다. 서울소재 주요대학 합격자가 2024학년 401명, 2025학년 414명에 이어 3년 연속 400명을 넘었다. 선덕고는 "수시 정시 프로그램 자체가 SKY를 비롯한 상위대에 맞춤 설계돼 있다. 특목고 지원자가 많은 고대 계열적합전형에서도 다수 합격자를 배출해 사정관들이 놀랄 정도다"라며 교내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내신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잠재운다. 현행 9등급제 기준 평균 4.55등급 학생도 상위권 대학에 진학했고, 6등급대 학생이 인서울 대학에 합격한 사례도 있다. 고3 학급당 평균 20여 명이 인서울 대학에 합격하는 구조다.

<2028개편 최적화.. 유연한 교육과정으로 '완벽 대응'>

2028대입개편을 앞두고 선덕고가 내세우는 무기는 교육과정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이어지는 변화 속에서도 흐름을 빠르게 읽고 학생에게 실제로 필요한 역량을 교육과정에 담아왔다. 독자적인 교육과정 편제, 우수한 과학/공학 교육환경, 진로와 연계된 탐구 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이번 개편 역시 무리 없이 대응할 전망이다.

내신 5등급제 도입에도 자신감이 묻어난다. 2028대입 체제에서 대학들은 내신등급만이 아니라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어떤 탐구를 했는지, 학교가 학생의 역량을 어떻게 길러 기록했는지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덕고 관계자는 "2028대입은 숫자만의 평가에서 숫자와 글자와 말을 함께 보는 평가로 바뀌고 있다"며 "치열한 학업 환경 속에서 성장한 선덕고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5등급제 이후에도 수시 수능최저 등 수능의 영향력은 여전한 만큼, 야자와 수능형 내신으로 수시/정시를 동시에 대비하는 선덕고 체제의 강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년을 이어가는 학년부 체제도 선덕고만의 강점이다. 1학년 부장이 3학년 부장까지 연속으로 맡아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을 긴 호흡으로 지도한다. 학생을 한 해 단위로 끊어 보는 것이 아니라 3년간의 성장 과정을 꿰뚫고 진학 방향을 잡아준다는 의미다. 정성평가 요소가 강화되는 2028개편 흐름에서 생동감 넘치는 차별화된 학생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위권 학생을 위한 고급 과목도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 과학과제연구, 고급미적분, 고급대수, 고급기하, 고급물리학, 고급화학, 고급생명과학, 고급지구과학 등 특목고 수준의 선택과목을 운영해 심화 학습 기회를 보장한다. 학생/학부모 대상 과정선택 설명회와 맞춤형 상담으로 고교학점제 국면에서의 과목 선택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올해 1학년 지정과목에서 선덕고의 우월한 교육과정 설계를 가늠할 수 있다. 정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탐구, 한문, 진로와 직업을 1학년 전원이 이수한다. 자율주행차 탐구는 개념 수업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이 실제 자율주행차를 작동시키며 센서와 데이터, 알고리즘이 차량의 움직임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한다. AI를 추상적 기술이 아닌 현실 문제를 푸는 도구로 체감하는 수업이다. 진로와 직업에서는 주변 문제를 탐구 주제로 잡고 교과 지식으로 해법을 찾는 경험을 제공하는 셈이다. 1학년에 다진 탐구 역량은 2/3학년 진로 맞춤형 선택과목 설계로 이어지며 교육의 연속성도 확보한다.

한문 지정도 눈길을 끈다. AI 시대일수록 정보를 정확히 읽고 개념을 깊이 이해하는 문해력이 경쟁력이라는 판단에서다. 한문은 학문적 어휘와 추상 개념 이해의 바탕이 돼 사고력을 키운다. AI/공학 교육, 인문학적 소양, 진로 기반 탐구를 한데 묶은 교육과정인 셈이다. 고급미적분, 고급물리학 등 특목고 수준의 고급과목으로 상위권의 심화 학습 기회도 보장한다.

<진정성 묻어나는 맞춤지도.. '수시/정시 완벽대비'>

선덕고의 가장 큰 강점은 입시를 교육의 전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교육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읽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업역량, 탐구역량, 인성을 교육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 반영하면서

공부뿐만 아니라 공동체역량 함양 등 전인적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진학지도 역시 교육관과 궤를 같이한다. 수시와 정시를 나눠서 교육하지 않는다. 결국 학습의 기본은 탄탄한 학업역량이라는 판단에서다. 공부는 모든 학생이 해야 하는 기본인데 여기에 더해 교과 수업 속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탐구 주제로 발전시키며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경험을 학생들에게 지도하고자 하는 일념하에 교사진들의 지도가 이뤄지고 있다.

진학지도의 진정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상담하고, 학습 방향을 잡아 주며, 지친 학생들에게 다시 동기를 부여하는 교사들의 헌신이 거름이 돼 현재의 선덕고가 있게 됐다. 매번 그래왔듯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력과 인성을 함께 키워주는 것, 선덕고가 자부하는 가장 큰 장점이다.

목표 대학별 맞춤지도 역시 촘촘하다. 의대 지망생은 1학년부터 학년부장이 학생부와 성적을 관리하고, 교내에서 부족한 실험은 서울시립과학관 Open LAB과 연계해 채운다. 서연고 면접은 3월부터 학과별 면접 유형을 분석해 교과별로 지도하고, 수능 이후엔 횟수 제한 없이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명의 수능 만점자로 가늠할 수 있는 정시 경쟁력은 '수능과 연계된 내신'에서 비롯된다. 내신을 준비하다 보면 수능 실력이 함께 길러지는 구조를 일찍이 구축했다. 학평/수능 출제위원 출신 교사들이 수업을 이끌고, 2028수능 대비 통합사회/통합과학 교재도 자체 제작해 끊임없이 수능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접한다. 수학/탐구는 시수를 늘리고, 국어/영어는 '매일 국어' '모닝 국어' '매일 어휘'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학평에서 1학년의 국어 81%, 수학 89%, 영어 93.5%가 3등급 이내에 든 비결이다.

올해 가장 주목할 변화는 2026학년부터 새로 가동한 '마스터클래스'다. 방과후 수업을 한 단계 심화한 형태로, 학생 60명을 선발해 20명씩 3개 반으로 집중 관리한다. 자체 교재로 차별화된 수업을 진행하고, 매 차시 과제를 부여해 점검한다. 서바이벌 모의고사와 자체 '선덕모의고사'로 실전 감각도 끌어올린다. 학습 관리는 수업에서 끝나지 않는다. 학평과 서바이벌 모의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컨설팅 3회, 학생/학부모/학년부장/담임교사/융합부 교사가 함께하는 진학컨설팅 3회가 이어진다. 명문대에 진학한 선덕고 졸업생들은 '졸업생 어드바이저'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클래스별로 상주하며 자습 관리와 질의응답, 학습 노하우 특강을 맡는다. 2학년에도 심화반과 별도로 60명 규모의 마스터클래스를 편성해 정시 역량을 키우고, 학년부별 심화반은 학생에게 필요한 방과후 수업과 자습 관리를 제공한다. 수시와 정시를 고르게 대비할 수 있는 한층 강력한 학습 체제를 갖춘 셈이다.

무엇보다 면학 분위기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교생 95% 이상이 자발적으로 야자에 참여하고, 감독교사와 전문 자습관리 지도사가 층마다 관리한다. 관리 체계를 보고 타 광역자사고에서 전학 온 사례가 있을 정도다. 36개 스쿨버스 노선이 야자 이후 귀가까지 안전하게 책임져 학부모들의 근심도 덜어낸다.

<차별화된 심화 프로그램.. 경쟁력 넘치는 학생부 자양분>

선덕고의 심화 교육 프로그램은 수시 경쟁력의 산실이다. 선덕고의 수시 경쟁력은 학생부에서 출발한다. 강의/독서/토론/과정형 수행평가로 이뤄지는 수업부터 학생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동아리, 공학/의생명/환경 트랙이 학생부의 질을 자연스레 끌어올린다.

선덕고의 대표 프로그램은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1학년은 수학/과학/융합 인재반을 각 20명씩 60시간, 2학년은 수학/과학/융합 영재학급을 각 20명씩 100시간 운영한다. 1학년 수학 인재반은 사물인터넷/자율주행자동차, 과학 인재반은 과학실험/자율주행자동차, 융합 인재반은 미디어리터러시/AI 프로그래밍/인공지능 분야 과제를 연구한다. 2학년 수학 영재학급은 피지컬컴퓨팅/머신러닝 과제연구와 로봇캠프를, 과학 영재학급은 심화과학실험/AI 생체모방 로봇제어 과제연구와 과학캠프를, 융합 영재학급은 AI 메이커톤/머신러닝 과제연구와 인공지능캠프를 진행한다. 2학년 영재학급은 공통으로 자율형사립고 연합 인문학 캠프와 공간 캠프에도 참여한다.

진로전공 탐색 특화 프로그램인 '아카데미'도 운영한다. 1/2학년을 대상으로 자연공학 아카데미(학년별 각 20명)와 자율주행 공학리더(20명 내외)를 각 60시간씩 진행한다. 자연공학 아카데미는 메이커 활동과 피지컬 컴퓨팅 교육을, 자율주행 공학리더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교육을 다룬다. 탐구 성과는 매년 '탐구학술한마당'에서 발표하며 심사위원 앞에서 연구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경험을 쌓는다. 1학년부의 '체인지 메이커'(수학과학 커뮤니케이터, 미래식량 연구소 프로그램), 연구부의 독서토론 프로그램 '읽다, 잇다'와 교환읽기 등 학년부/부서별 프로그램도 학생부를 풍성하게 채운다.

비교과활동 역시 재학생에 초점을 맞춰 구성한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은 교과 연계와 진로 탐색의 장이 되고 융합인재프로그램, 진로수업/자율진로활동, 공학 의생명 환경 등 맞춤형 트랙은 학생 개인의 관심 분야를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연스레 굵직한 성과가 따라온다. 현대모비스 청년공학 자율주행 학술대회,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에 올해 국제정보올림피아드 금메달 국가대표까지 배출했다.

학교의 본분인 전인적 성장의 한 축인 인성교육 역시 소홀히 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추억여행/둘레길 하이킹, 지역사회 어르신과 함께하는 합창한마당, 아름다운 선덕인 시상, 학급 행복캠프, 학기말 세족식 등을 통해 배려와 감사,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익힌다. 규칙을 잘 지키고 학습 의지가 높은 학생이 모인 환경인 만큼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학교폭력 사안도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장학 혜택도 전폭적이다. 진단평가와 3월 학평 성적에 따라 3년 수업료 전액(상위 1%)부터 1년 수업료 전액(상위 3%), 1년 수업료 50%(상위 5%)를 지원하는 선덕글로벌리더장학 Ⅰ을 비롯해 학평/내신 성적 기준 장학 Ⅱ/Ⅲ를 운영한다. 기회균등전형 입학생에게는 진단평가 성적에 따라 3년간 월 5만~15만원(총 180만~540만원)을, 사회다양성전형 입학생에게는 입학장학금 30만~50만원을 지급한다. 2027학

년부터는 기회균등전형 입학생의 해외 소규모테마여행 경비(교육청 지원금 제외 잔액의 90%, 최대 120만원)와 통학버스 경비 전액도 학교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방과후 수업 무료수강권도 제공한다.

입학을 앞둔 중학생에게 선덕고는 고교 선택을 대입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선덕고 관계자는 "더 중요한 것은 그 학교가 학생의 3년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느냐"라며 "수업을 성실하게 듣는 습관,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태도,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힘이 고교에서 학업/탐구 역량으로 이어진다"고 조언했다.

<정원내 385명 모집.. 일반 308명, 사회통합 77명>

선덕고는 2027학년 남학생 11학급, 정원내 기준 385명을 모집한다.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다. 전형별로 일반전형 308명, 사회통합전형 77명이다. 정원외로는 보훈자자녀전형 11명, 고입특례대상자전형 7명 등 18명을 선발해 총 모집인원은 403명이다. 지원자는 일반, 사회통합, 보훈자자녀, 고입특례대상자 전형 중 하나에만 지원할 수 있다. 사회통합전형은 모집정원의 20%를 의무 선발하며, 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하면 미달 인원의 50%(소수점 이하 버림)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한다. 원서접수 종료 직후 일반전형 최종 선발 가능 인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서울 광역자사고인 선덕고는 서울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기본 지원자격으로 한다. 중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로서 서울에 거주하는 자, 타 시도 소재 특성화중/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졸업예정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자도 지원할 수 있다. 자사고가 없는 시도 중 서울시교육감과 협의한 경남/제주/세종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지원자격을 갖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과 사회다양성전형으로 나뉜다. 1단계로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 우선 선발하고, 2단계에서 우선 선발되지 않은 기회균등 지원자와 사회다양성 1순위 대상자를, 3단계에서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 2순위 대상자를 선발한다. 기회균등전형 지원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 가구의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 제외) 또는 그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중학교 재학생 한정) 등이다.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는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다자녀(3자녀 이상) 가족 자녀다. 2순위는 한부모가족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다. 사회다양성전형은 순위와 관계없이 2026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족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40%(30명) 이내로 선발한다.

<서울형 자기주도학습전형.. 1단계 추첨, 2단계 면접>

선덕고는 서울형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1단계에서 성적 제한 없이 전형별 모집정원의 1.5배수를 추첨하고, 2단계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1단계 추첨 인원은 일반전형 462명, 사회통합전형 115명 등이다. 비서울 광역자사고와 달리 중학교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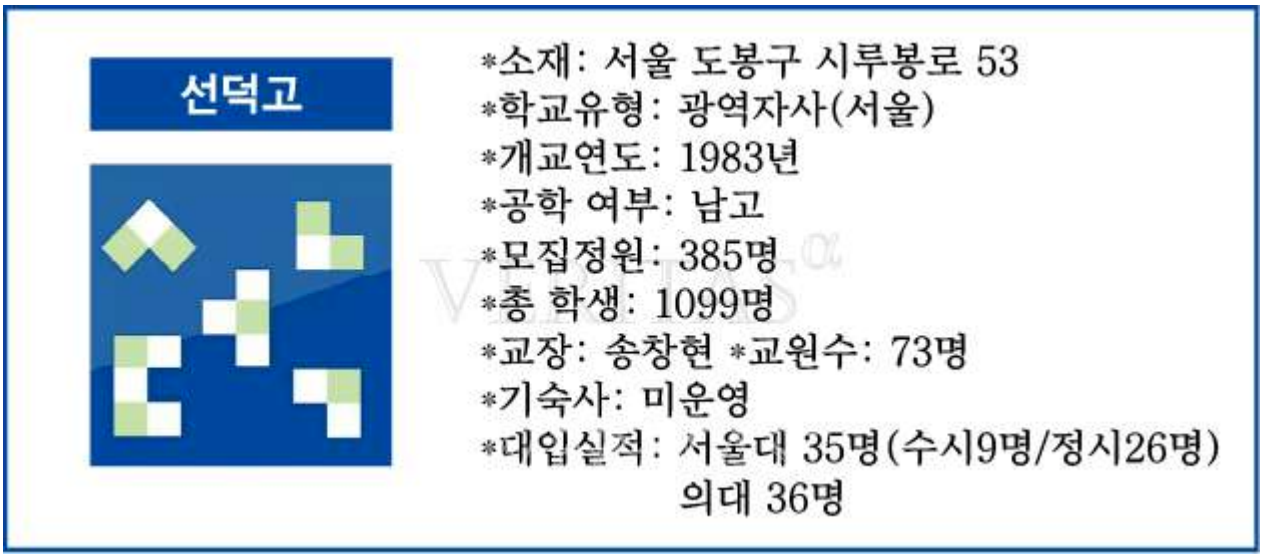
일반전형 지원율에 따라 전형방법이 달라지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지원율 100% 이하면 지원자 전원 합격, 100%~120%는 면접 없이 추첨, 120%~150%는 추첨 없이 면접, 150%를 초과하면 1.5배수 추첨 후 면접을 실시한다. 사회통합/보훈자자녀/고입특례대상자 전형은 각 전형 지원율과 관계없이 일반전형과 같은 방식으로 선발한다. 일반전형이 미달로 자동 합격이더라도 이들 전형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면 '면접 생략 추첨'으로 선발한다.

면접은 100점 만점으로 자기주도학습(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을 평가한다. 자기주도학습 영역에서는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평가의 전 과정, 건학이념과 연계한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을 본다. 인성 영역에서는 자소서와 학생부에 기재된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해 배려/나눔/협력/타인존중/규칙준수 등 중학교 활동 실적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평가한다. 참고자료는 자기소개서와 학생부Ⅱ(수상경력, 교과학습발달상황,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외)다. 면접에서 본인 이름/학교명이나 부모/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언급하면 해당 항목 배점의 10%가 감점된다. 동점자는 미인정 결석일수가 적은 학생, 면접 1/2/3번 문항 점수가 높은 학생 순으로 선발한다.

자기소개서는 두 영역을 모두 포함해 영역 구분 없이 120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작성한다. 자격증 명칭/취득 사실, 교과 점수/석차, 영재교육원 교육/수료 여부, 공인어학시험 성적, 교내외 대회 성적/수상실적 등을 기재하면 0점 처리되며, 우회적/간접적 진술도 마찬가지다. 참여 사실만 기재해도 해당 항목 배점의 10%가 감점된다. 논문/도서출간/지식재산권, 해외 활동, 부모/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장학생 관련 내용, 특정 대학명/기관명/상호명/강사명, 본인 인적사항 암시 내용 등도 10% 감점 대상이다. 유사도 검증시스템으로 표절을 확인하며 대리/허위 작성 시 사후에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원서접수 12월3일부터 7일까지>

원서접수는 12월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다. 지원자는 7일 오후5시까지 자소서 학생부 수험표를 제외한 1차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선덕고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면접대상자 추첨은 9일 오후2시에 실시하며 면접대상자는 11일 오전10시까지 자기소개서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2차 서류제출이 진행된다. 면접을 19일에 치르고 2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상현 기자 lsh@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